



관찰의 인문학
호르비츠 지음

걷기 통해 깨닫는 사유의 미

걷기란 무엇일까? 단순히 이곳에서 저 곳으로 옮기는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소한 관계의 사람들도 걷기를 계기로 친밀감과 호감을 갖게 된다. 어떤 이는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산책을 통해 답을 찾기도 한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심리학, 동물 행동을 가르치는 알렉산드라 호르비츠가 펴낸 '관찰의 인문학'은 걷기를 통해 깨닫는 사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저자는 걷기란 곧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저자는 또한 11명의 '관찰전문가'들과 함께 걸으며 일상적인 풍경 뒤의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한다. 지질학자, 일러스트레이터, 의사, 시각장애인, 아기, 음향 엔지니어, 곤충박사, 야생동물 연구가 등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은 하나의 우주에 다르다.

〈시드페이퍼·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조선의 지식계보학
최연식 지음

조선 지식인 기준은 '문묘종사'

일반적인 지식인은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 또는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일정한 수준의 지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지식층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연세대 정치외교과 최연식 교수가 펴낸 '조선의 지식계보학'은 당대 지식인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조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조선의 지식인 기준은 '문묘종사(文廟宗祔)'였다.

문묘에 종사된 성현들의 목록을 보면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인 삼봉 정도전은 포함되지 않고 반면 조선 개국에 반대했던 고려 충신 정몽주는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15명의 문묘에 종사되는 과정을 다루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 "조선의 문묘 종사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표면적 결과가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정치의 적나라한 속살"이라는 것이다. 〈육당·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먹고 자고 싸고 노는 집의 내밀한 역사



하우스 스캔들

루시 워슬리 지음



산부인과 병원이 생기기 시작한 18세기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서 태어났다. 인생은 침실에서 출발했고, 대개의 경우 침실에서 막을 내렸을 것이다... 중세의 임신부 사망률은 임신 50회당 1회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10여 차례 출산한 점을 고려할 때 생식력이 좋은 여성의 사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튜더 왕조 시대의 임신부들은 화가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분만에 앞서 으레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본문 중에서)

집에도 역사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의 모든 공간과 물건에는 역사가 있다. 집에서는 여러 행위가 일어난다. 먹고, 자고, 싸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이뤄진다. 본능적 욕구 외에 놀고, 만나며 색사와 같은 성행위도 이뤄진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여러 공간과 다양한 물건을 접하며 나름의 행위를 한다. 그러나 역사적이지도 침실과 욕실, 주방, 거실, 베란다 등은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영국의 주목받는 역사학자로 꼽히는 루시 워슬리가 펴낸 '하우스 스캔들'은 집에 얽힌 문화사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일화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인문적 탐색은 묘한 호기심과 재미를 선사한다. 제목부터 '하우스 스캔들'이다. 집과 모든 물건은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농가에서 궁정까지를 망라한 집의 역사를 다룬 BBC 시리즈에 참여하면서 책을 기획했다. 책에 수록된 인간의 생활사는 디테일한 것부터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침대의 역사, 질병, 성병, 수면의 역사, 화장과 화장실, 욕실의 탄생, 화장지의 역사, 죽음과 장례식 등 많은 부분을 망라한다. 때로는 낯 뜨겁지만 매력적인 생활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침실의 내밀한 역사만 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침실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다. 노크 없이 불쑥 들어가는 것은 무례 그 자체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수면 목적을 위한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쉬거나 먹으며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침실이었다. 독립적인 방에서 자기 침대에 누워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근대적인 개념이었다.

욕실 또한 만만찮은 변화를 겪었다. 사실 욕실의 역사는 사회적 관습과 청결을 둘러싼 개념의 발전에 좌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씻기 위한 독립적인 방은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즉 배관 설비 향상이 변화를 주도했다기보다 인식의 변화를 따라 변모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거실에 대해서도 문화사적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거실이 여러 특화된 공간(예컨대 응접실, 담화실, 흡연실 등)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을 예절의식에서 찾는다. 청혼, 결혼피로연, 연회 같은 행사에서 사람들의 처신은 고스란히 노출되기 마련이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소비사회가 형성되면서 중산층은 가구와 비품을 비차하기 위한 치장에 신경을 써야 했다.

이처럼 집의 공간과 물건의 문화사적 변모는 몸을 바라보는 관점(개념)과 결부된다. 다시 말해 몸을 돌보는 미세한 차이에 의해 파생되었던 것이다. 몸과 관련되었기에 은밀하고 적나라하면서도 이색적이며 달콤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간단하다. "책에는 사소하고 이상하고 기발하며 얼핏 잡다해 보이는 세세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혁명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집은 거주자의 시간, 공간, 생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다."
〈유일문화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최고 미스터리 작가들의 최고 미스터리 걸작 비평



죽이는 책

존 코넬리 외 역음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죽이는 책'이 러니. 더러 제목의 강렬함이 내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들이 꼽은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내용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아일랜드 작가 존 코넬리와 기자 출신 디클러 버크가 펴낸 '죽이는 책'은 현존하는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들이 최고의 미스터리 걸작을 다룬 비평 선집이다. 한마디로 미스터리 가이드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스터리라는 수많은 작가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적합한 틀거리를 제공해왔다. 여타의 장르보다 가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해 왔다. 책에는 에드거 앨런 포와 찰스 디킨스, 아서 코난 도일, 레이먼드 챈들러, 조루주 심농, 트루먼 커포티를 거쳐 기리노 나쓰오, 이언 랜킨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전설의 작품'이 연대기순으로 다뤄진다.

이들 작품을 평하는 작가들은 미스터리 장르에서는 손꼽히는 세계적인 작가들이다. 윌리스 마틴, 앤드루 테일러, 조셉 핀더, 로라 월슨부터 스킷 필립스, 피터 로빈슨, 크리스토퍼 브룩마이어, 캐서린 하월에 이르기까지 미스터리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쌓은 이 들이다.

책에 실린 글에는 미스터리 문학사와 작가 계보에 물론 미스터리 문학이 반영한 당대의 사회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세상·2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

아이들에게 깨끗한 우리말 물려주자



바른말 바른글

이오덕 지음

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이오덕 선생의 교육 문고 '바른말 바른글'이 나왔다. 부제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말 바로 쓰기'로 그동안 출 판되지 않은 원고를 갈무리해 묶었다.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며(→

겨내며)',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자라나기) 위해' 등 아이들에게 잘못된 말과 말법을 퍼뜨리는 어린이 문학작품을 하나하나 밑줄을 쳐가며 살펴서 바른말 바른글로 바로잡아 놓았다.

또 어른들의 병든 말에 오염된 어린이 글도 살펴 보고, 겨레말을 잡아 먹는 일본말과 한자말을 숨어내어 바로잡아 놓았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우리말을 주는 것이 아동문학과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첫째 가는 일임을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 〈고인돌·2만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